

연구논문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출산 의향: 초혼 및 재혼 차이를 중심으로

Marriage Immigrant Wives' Relationships with Their Husbands,
Social Networks, and Fertility Intentions:
A Comparison between First Marriage and Remarriage

김 필 숙^{a)} · 이 윤 석^{b)} · 김 두 섭^{c)}

Phil-Suk Kim · Yun-Suk Lee · Doo-Sub Kim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간 대화, 결혼생활 만족도, 사회적 관계 요인이 초혼과 재혼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혼인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재혼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낮다. 둘째,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은 더 높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초혼에 비해 재혼인 경우 더 크다. 셋째, 모국인 모임, 지역사회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모임 및 활동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을 높이며, 이러한 효과는 초혼보다 재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이 초혼과 재혼의 결혼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출산 의향, 초혼과 재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3476).

a)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윤석.
E-mail: yslee@uos.ac.kr

c)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특임교수.

This study examines potential factors, including couple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that affect marriage immigrant wives' fertility intention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we found that marriage immigrant wives who had remarried were less likely to have intentions to give birth than those who had married for the first time. As marriage immigrant wives spent more time interacting with their Korean husbands and becam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ital life, they became more likely to plan an additional child. Moreover, they planned to have more children as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and gatherings increased. Furthermore, we found that associations between these factors and fertility intentions were stronger for marriage immigrant wives who had remarried than those who were in their first marital un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fertility intentions of marriage immigrant wives vary based on the status of the marital union.

Key words: marriage immigrant wives, fertility intentions, first marriage, remarriage

I. 서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출산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 혼인 건수가 2008년 36,629건에서 2016년 현재 21,709건으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17),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는 많은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여성이며, 이들의 출산이 국내 여성과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높은 출산율이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지속 현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이들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및 학문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유삼현 2017; 유정균 2015; 이삼식 외 2007).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출산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및 문화 등에서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김미정·염동문 2015; 이민아 2010; 송민경 2014). 그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새롭게 형성된 시댁 식구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김은하 외 2012; 송민경 2014). 그러나 출산은 한국사회의 낯선 가족에게 신뢰감을 얻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복례 외 2014). 따라서 출산은 배우자와 시댁 식구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도울 수 있다(김두섭 2008; 남부현·오정아 2013; 임현숙 2011; 조윤주 2015).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이들의 출산 수준에 관심을 보여 왔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과 국내 여성의 출산력을 비교하거나(김두섭 2008; 김현식 2015; 유삼현 2017; 유정균 2015),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김두섭·송유진 2013; 유정균 2014). 많은 선행연구가 출산에 대해 인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출산 행동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Friedman et al. 1994; Myers 1997). 기존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적, 지역, 연령 및 교육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김두섭 2012; 김두섭·송유진 2013; 유정균 2014). 그러나 출산을 부부의 합의된 결정으로 본다면 부부관계를 포함한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이 출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김은경 2014). 예를 들어 결혼생활 안정성이 높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 및 결혼생활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짐으로써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유진 2007; 김은경 2014; Myers 1997).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논의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결혼형태의 변화이다. 혼인 이주 초기에는 다문화 혼인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인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재혼인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재혼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임춘희 2014; 장인실 외 2012). 재혼은 이전 결혼의 배우자나 자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초혼보다 안정

성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Cherlin 1978; De Graaf & Kalmjin 2003). 국내 여성과 달리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 부부 간 관계나 한국사회의 적응이 갖는 의미는 초혼과 재혼에서 다를 수 있다. 초혼의 경우 첫 결혼과 첫 출산 등 중요한 생애사건이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cycle)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 이혼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 등 더 복잡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재혼 가족에 대한 적응문제 및 전혼 자녀 문제 등 초혼보다 더 많은 이중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자녀 출산이 초혼과 재혼 모두에게 결혼생활을 안정화 시키고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초혼과 재혼에서 출산은 매우 다른 상황으로 보인다(이난희·송혜숙 2015; Sweeney 2010; Wineberg 1990).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초혼과 재혼에 따른 출산 관련 국내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초혼과 재혼의 결혼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유형을 초혼과 재혼으로 구분하고 그 차이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출산 의향은 향후의 자녀 출산 가능성에 대한 태도로서(Richter et al. 1994), 실제 출산 행위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Schoen et al. 1999). 따라서 출산 의향은 저출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Luo & Mao 2014).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토대로 더욱 명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유정균 2014), 정책 관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1990년 외국인과의 결혼은 4,710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 4만 2,356건으로

최고점에 달했다. 그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1년 30,695건에서 2015년 22,462건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5, 2016). 그렇지만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현재 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16). 다문화 출생아 수를 보면 2008년 13,443명에서 2012년 22,90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현재 19,431명으로 약간 감소했다(통계청 2017). 그러나 전체 출생아 수에서 다문화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9%에서 2016년 현재 4.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7). 이에 반해 국내 출생아 수는 2008년 465,892명에서 2012년 484,55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6년 현재 406,243명으로 출생아 수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17). 몇몇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수준이 국내 여성보다 더 높다(유삼현 2017; 유정균 2015). 특히 두 집단 모두 첫째와 둘째 자녀는 차이가 없으나 결혼이주여성이 셋째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식 2015).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은 국내 여성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에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하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대한 논의는 연령, 교육, 지역, 출신 국가 등 개인적 특성과 부부간 연령 및 교육수준 차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에 집중하고 있다(김두섭 2008; 김두섭·차승은 2008; 김한곤; 2011; 이삼식 외 2007; Andersson 2004). 이러한 논의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적, 지역의 다문화 비중, 남편과 부인의 연령 및 교육 차이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언어 및 문화 등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기존의 인구학적 논의에서 벗어나 부부관계를 포함한 결혼생활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면(강유진 2007; 김은경 2014; Friedman et al. 1994; Myers 1997),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부간 대화

부부간 대화는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많은 부부들은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된

다(김은경 2014).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서로 공감하고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 나간다. 이에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부가 함께하게 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내 정서적 측면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awler & Yoon 199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인과 남편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Mason & Smith 2000). 부인과 남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rtmann et al. 2012). 이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고 개인들의 만족감을 높여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부인과 남편이 의사결정에 있어 함께 함으로써 젠더 불평등 수준이 감소하여, 출산 목적에 대해 배우자와의 일치도가 높아진다(Mason & Smith 2000).

그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광일 2011). 이는 부부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등을 높여서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부 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갈등이 높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천혜정 2005; 한은주·박정윤 2006).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 문제로 가족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어가 가족관계 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면(남부현·오정아 2013; 최정혜·이명주 2016; Kim et al. 2016) 결혼이주여성에게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은 배우자의 긍정적 지지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김오남 2006).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대화 시간은 이들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남부현·오정아 2013; 이재경 2009).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 문제와 새로운 가족문화에 적응하는 등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남부현·오정아 2013; 조미영·주영은 2013).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민아 2010).

결혼이주여성에게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관계 안정성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한국생활에서의 적응을 돕는 데 중요하다(송민경 2014; 조윤주 2015). 무엇보다 출산이 부부의 선택과 합의된 행위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 사건임을 고려할 때, 부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결혼생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김현식 외 2017; 배광일 2015). 때문에 결혼생활 만족도가 출산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생활만족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 안정성과 관계 지속성을 높여서 여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아이를 갖게 한다(Carmichael & Wittaker 2007). 뿐만 아니라 부부간 결속감(solidarity)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또는 행복감이 높아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Myers 1997).

비슷한 경향이 국내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를 추가 출산하려는 의향이 높다. 특히 둘째 자녀 출산에 결혼만족도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14; 이윤석 외 2016; 정은희·최유석 2013). 이처럼 부부간의 안정성과 결속감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 이러한 효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국내 여성에 비해 부부관계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및 결혼생활 만족도가 이들의 출산 결정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송민경 2014).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출산 결정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 특성인 결혼생활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강유진 2007; 이윤석 외 2016; 임현주 외 2011).

3) 사회적 관계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여성과 달리 제한된 사회적 연결망과 관계를 맺는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한국으로의 이주로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이민아 2010). 한국으로의 이주는 언어장벽, 낯선 문화 및 환경 등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특히 이주 초기에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출산 및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김승주 2016; 송민경 2014; Abbasi-Shavazi & McDonald 2000).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풍부한 사회적 관계는 한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민무숙 외 2013).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구성원과의 관계 크기 및 밀도, 다양한 모임이나 단체 등의 참여 수에 따라 연결망의 크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Thoits 1983; Seeman et al. 2001).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연결망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주고받는지 등 그 관계 유형과 도움을 주고받는 횟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노연희 외 2012).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 출신 사람들과 모임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받는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도를 높여 나간다(김경미 2012; 이종호·노연희 2017). 그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결속력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Woolcock & Narayan 2000).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중요한 자원이다(이민아 2010).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새로운 사회에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출산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Kohler et al. 2001).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수록 자녀의 출산이라는 새로운 삶의 과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커질수록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및 출산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두섭 2008; Kohler et al. 2001).

4) 결혼이주여성의 초혼과 재혼 차이

결혼을 초혼과 재혼으로 구분한다면, 초혼은 결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미혼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만, 재혼은 이혼이나 사별 등 이전에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변용찬 외 2010). 그런데 최근 국제결혼에서 주목할 현상 중 하나가 재혼 부부의 증가이다(임춘희 2014). 다문화 혼인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재혼 가족은 40.6%이다. 이와 달리 국내 혼인에서 재혼 비율은 21.2%이므로 다문화가족의 재혼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인 경우는 59.4%뿐이다. 이는 2015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초혼인 결혼형태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 같은 해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16.2%, 남자 재혼과 여자 초혼은 11.8%, 그리고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은 11.6%이다(통계청 2017). 반면 국내 혼인에서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78.5%로 가장 높고, 남자 재혼과 여자 초혼은 3.9%, 그리고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은 5.9%로 다문화 혼인 형태는 국내 혼인형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2017).

일반적으로 재혼 부부가 초혼 부부보다 이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결혼에서 초혼과 재혼 차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안정성뿐 아니라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임춘희; 2014; McCarthy & Ginsberg 2007). 특히 재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 재혼여성과 달리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재혼에 관한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송민경 2014; 장인실 외 2012).

결혼형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혼은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많은 초혼 부부의 경우 재혼 부부와 달리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 초혼보다 평균 연령도 높고(우해봉 2012), 이전의 혼인에서 출산한 자녀 등으로 인해 초혼에 비해 출산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연령이 1세 높아질수록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은 9% 감소하며, 부인과 남편의 재혼 여부는 추가 출산계획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편이 재혼인 경우 추가출산에 대한 의향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정균 2014).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초기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초혼과 마찬가지로 재혼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출산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남부현·오정아 2013; 조운주 2015; 장인실 외 2012). 때문에 결혼생활 안정성이 높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수록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더 높다(유정균 2017).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생활은 배우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은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배우자와의 관계, 결혼생활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된 것처럼, 배우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사회적 모임 및 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섭 2008; 김현식 외 2017; 배광일 2011; Carmichael & Wittaker 2007; Mason & Smith 2000; Kohler et al. 2001).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초혼과 달리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에서의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적응문제 등 재혼 가족의 복잡한 가족구조를 형성하게 된다(Sweeney 2010).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 재혼과 달리 재혼 여성으로서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 재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본국에서 이혼경험과 함께 중도입국한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혼 자녀 문제 때문에, 새롭게 가족을 꾸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출산을 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혼 부부들은 출산한 자녀를 통해 부부간 결속을 더욱 다질 수 있다(Holland & Thomson 2011; Steward 2002).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자녀 출산으로 가족 간의 결속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출산은 재혼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임춘희 1996; 장인실 외 2012; Friedman et al. 1996). 재혼이 초혼에 비해 이혼율은 높지만, 부부간 안정성이 높은 재혼 가족의 경우는 초혼보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송민경 2014; McCarthy & Ginsberg 2007; Mirecki et al. 2013). 따라서 재혼가족의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의미는 재혼가족의 안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3. 연구문제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많은 연구가 국내 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수준을 비교하거나(김현식 2015; 유삼현 2017; 유정균 2015)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김두섭 2012; 김두섭·송유진 2013; 유정균 2017).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출산에 대해 인구학적 관점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출산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Friedman et al. 1994; Myers 1997).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결혼 가족의 재혼비율 증가(송민경 2014; 장인실 외 2012) 등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형태가 이들의 출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요인(부부간 의사소통, 결혼생활 만족도)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이러한 차이가 결혼이주여성의 초혼과 재혼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와 대상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2009년을 시작으로 3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조사목적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가족에 대해 지원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결혼 이민자, 귀화자, 이들의 배우자 및 만 9~24세 청소년 자녀와 가구이다. 2015년에

실시된 조사는 27,120가구 중 65%인 17,849가구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표본가구의 63.1%인 17,109명, 배우자는 표본가구의 57.3%인 15,540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녀는 해당 가구에 만 9~24세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조사를 하였고, 총 6,079명이다(정혜숙 외 2016).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전체 분석 표본은 14,866명이다. 이 중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상태는 현재 기혼인 경우이며 연령은 4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11,146명이 포함되었다.

2. 변수

1) 출산 의향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이다. 출산 의향은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으로서(Richter et al. 1994),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실제 출산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arber 2001). 따라서 출산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출산 의향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McQuillan et al. 2014).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행위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출산력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Luo & Mao 2014). 이러한 분석은 종단적(longitudinal) 자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따른 희망 자녀 수와 실제 출산 자녀 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을 분석할 수 있는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횡단적(cross-sectional) 자료로 출산 의향만을 조사하고 있어 출산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출산 의향은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계획에 대한 유무로,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구분하였다.

2) 부부간 대화

부부간 대화는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응답은 30분 미만(1점), 30분~1시간(2점), 1~2시간(3점), 2시간 이상(4점)으로 점수는

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는 배우자와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측정하였다. 응답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사회적 관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의 이주로 사회적 연결망을 재구성해 나간다(김경미 2012; 김이선 외 2011; 이민아 2010). 따라서 이주 전후의 연결망 크기 및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변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인 모임이나 종교단체 등 각종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참여하고 있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 주민 모임, 종교 활동 및 민간단체 활동(이주민 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응답하였다. 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0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점으로, 각 모임의 참여 경험 합계를 이용하였다. 응답은 ‘참여한 적이 없다’ 0점, ‘한 가지 종류 모임에 참여한 경우 1점’에서 ‘4가지 종류 모임에 참여한 경우 4점’으로 측정하였다.

5) 결혼형태

결혼형태는 초혼과 재혼 여부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and 남편의 결혼형태에 따라 초혼인 경우 0, 재혼인 경우 1의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6)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부인과 남편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거주 지역, 한국어 능력, 자녀 수, 한국 입국 시기, 가구소득 그리고 국적 등을 포함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편의 연령은 ~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부인과 남편의 연령 및 학력 변수의 경우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제기되어 두 변수 모두 범주형으로 분석하였다. 취업 여부와 거주 지역은 범주형 변수로 현재 취업한 경우 1, 비취업이면 0,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0,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1로 구분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를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대해 ‘전혀 하지 못한다(1점)’에서 ‘매우 잘한다(5점)’로 대답한 응답을 평균하여 이용하였다.

자녀 수는 출산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러나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는 현재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자녀 수 변수만 제공하고 있어 재혼 결혼이주여성들의 중도입국 자녀 여부 등 이전 혼인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자녀 수 변수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사는 가구원으로 0명, 1명, 2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기간은 그 시기에 따라 자녀 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그러나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된 변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입국 시기 변수를 분석에 포함했다. 한국 입국 시기는 ~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이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은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일본, 베트남, 필리핀 및 기타로 구분했다.

IV. 연구결과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1,146명)

	구분	전체		초혼	재혼	t-test / χ^2
		N	%	%	%	
연령	~ 24 세	1,004	9.0	10.2	0.7	1,521.288***
	25 ~ 29 세	2,587	23.2	25.7	5.7	
	30 ~ 34 세	2,664	23.7	25.5	10.9	
	35 ~ 39 세	2,101	18.9	19.0	17.8	
	40 ~ 44 세	1,642	14.7	12.3	31.9	
	45 ~ 49 세	1,168	10.5	7.3	33.2	
학력	초등학교	762	6.8	6.7	8.2	163.436***
	중학교	2,153	19.3	18.3	26.3	
	고등학교	4,646	41.7	40.8	47.9	
	2 년제 대학	1,455	13.1	13.7	8.7	
	4 년제 대학 이상	2,130	19.1	20.5	9.0	
취업 여부	비취업	6,043	54.2	52.2	68.3	125.166***
	취업	5,103	45.8	47.8	31.7	
한국어 능력 ¹⁾		11,146	3.6	3.6	3.6	-3.047**
자녀 수	0 명	2,326	20.9	16.1	54.6	1,132.797***
	1 명	4,337	38.9	40.1	30.3	
	2 명 이상	4,483	40.2	43.8	15.1	
한국 입국 시기	~ 1995 년	350	3.1	3.3	2.1	68.525***
	1996 ~ 2000 년	1,137	10.2	9.9	12.2	
	2001 ~ 2005 년	2,384	21.4	20.4	28.4	
	2006 ~ 2010 년	4,656	41.8	42.1	39.3	
	2011 ~ 2015 년	2,619	23.5	24.3	18.1	
남편 연령	~ 24 세	17	0.2	0.1	0.2	623.210***
	25 ~ 29 세	139	1.3	1.3	1.1	
	30 ~ 34 세	649	5.8	6.2	2.9	
	35 ~ 39 세	1,514	13.6	14.3	8.4	
	40 ~ 44 세	2,977	26.7	28.2	16.0	
	45 ~ 49 세	3,253	29.2	29.6	26.4	
	50 ~ 54 세	1,818	16.3	15.2	23.9	
	55 세 이상	779	7.0	5.0	21.0	

	전체			초혼	재혼	t -test / χ^2
	구분	N	%	%	%	
남편 재혼 여부	초혼	9,099	81.6	87.6	39.4	1,864.547***
	재혼	2,047	18.4	12.4	60.6	
남편 학력	초등학교	464	4.2	3.9	6.4	145.193***
	중학교	1,169	10.5	9.7	16.2	
	고등학교	6,021	54.0	53.5	58.0	
	2년제 대학	1,382	12.4	12.9	8.6	
	4년제 대학 이상	2,110	18.9	20.1	10.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8	3.4	3.4	3.5	43.501***
	100~200만원 미만	2,153	19.3	19.4	19.1	
	200~300만원 미만	3,981	35.7	36.5	29.9	
	300~400만원 미만	2,608	23.4	23.1	25.8	
	400~500만원 미만	1,187	10.7	10.1	14.5	
	500~600만원 미만	527	4.7	4.7	5.1	
	600~700만원 미만	156	1.4	1.4	1.2	
	700만원 이상	156	1.4	1.4	1.0	
거주 지역	동부	4,217	7.8	38.4	34.0	9.619**
	읍·면부	6,929	62.2	61.6	66.0	
국적	중국(한족)	2,413	21.7	18.6	43.5	885.490***
	중국(조선족)	1,000	9.0	7.3	20.7	
	일본	942	8.5	9.5	1.0	
	베트남	2,540	22.8	24.5	10.6	
	필리핀	1,227	11.0	12.0	4.1	
	기타	3,024	27.1	28.1	20.2	

* $p < .05$, ** $p < .01$, *** $p < .001$

1) 한국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경우 평균 점수임.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재혼의 경우 초혼보다 연령이 높다. 초혼의 경우 25~29세(25.7%), 30~34세(25.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재혼의 경우 40~44세(31.9%), 45~49세(33.2%)로 40대 비중이 높다. 학력을 보면 초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40.8%)과 4년제 대학 이상(20.5%)이 많지만, 재혼의 경우 중·고등학교 비율이 각각 26.3%, 47.9%로 높다. 취업 여부에 있어 초혼(5.2%)과 재혼(68.3%) 모두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어 능력 수준을 보면, 한국어 능력 평균 점수는 초혼과 재혼 모두 같은 수준이다. 두 집단의 자녀 수를 보면, 초혼과 달리 재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가 54.6%로 가장 높다. 한국 입국 시기는 초혼과 재혼 모두 2006~2010년이 가장 많다. 남편 연령은 초혼과 재혼 모두 40대가 가장 높다. 그 비율을 보면 45~49세가 29.6%, 26.4%이다. 남편의 재혼 여부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재혼의 경우, 남편 재혼 비율이 60.6%로 가장 높다. 남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두 집단 모두에서 높고, 가구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많다. 거주 지역은 초혼과 재혼 모두 읍·면부가 많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살펴보면 초혼의 경우 베트남(24.5%)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높지만, 재혼의 경우 중국 한족(43.5%), 중국 조선족(20.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국내 여성과 다른 측면을 보인다. 먼저, 결혼형태를 살펴보자. 통계청의 혼인통계를 보면 2016년 현재 국내 여성의 초혼은 82.5%, 재혼은 21.2%로(통계청 2017),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재혼 비율이 조금 더 낮은 편이다. 재혼한 한국여성의 연령 분포를 보면 ~24세 0.5%, 25~29세 4.4%, 30~34세 15.7%, 35~39세 22.3%, 40~44세 27.7%, 45~49세 29.5%이다(이삼식 외 2015).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5~29세, 30~34세 비율이 각각 23.2%, 23.7%로 높은 것과 달리 국내 여성의 경우 40대 비율이 높다. 국내 재혼 여성의 평균 연령은 44.4세로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재혼 연령(38.7세)보다 높다(통계청 2017).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출산 연령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여성들의 평균 출산 연령을 보면 32.4세로 30대 초반의 출산 연령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5세 이상의 출산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표 1>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20~30대 연령층이 많으며 평균 출산 연령 또한 29.7세로(통계청 2016) 국내 여성보다 낮은 편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보다 국내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1.7%로 가장 높지만, 국내 여성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1.5%로 높다. 취업의 경우 국내 기혼여성 중 취업 중인 경우는 56.5%로 결혼이주여성보다 높은 편이다. 국내 여성의 자녀 수를 보면 2명 55.9%, 1명 24.4%, 0명 7.1%로 2명인 경우가 제일 높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명 이상이 40.2%로 높다. 남편과 연령 차이를 보면 국내 여성의 경우 남편이 3~5세 연상인 경우가 27%로 가장 많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10세 이상인 경우가 37.7%(통계청 2016)로 국내 여성에 비해 남편과 연령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여성의 가구소득 또한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기준으로 80~100% 미만인 19.2%로 높다. 거주 지역을 보면 대도시 거주가 4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41.7%, 농촌이 14.7%로 가장 낮다(이삼식 외 2015).

2. 결혼이주여성의 결혼형태에 따른 출산 의향

결혼이주여성의 초혼과 재혼 두 집단의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표 2>, <그림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72.7%는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혼과 재혼에 따라 살펴보면, 향후 자녀를 추가로 가질 계획이 없는 비율이 초혼에 비해 재혼의 경우가 더 높다. 초혼의 경우 출산 의향이 없는 비율은 71.2%, 재혼의 경우는 83.2%이다. 반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혼이 28.8%, 재혼이 16.8%이다. 재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전 혼인에서의 자녀 또는 남편의 전혼 자녀 때문에 또 다른 자녀를 기피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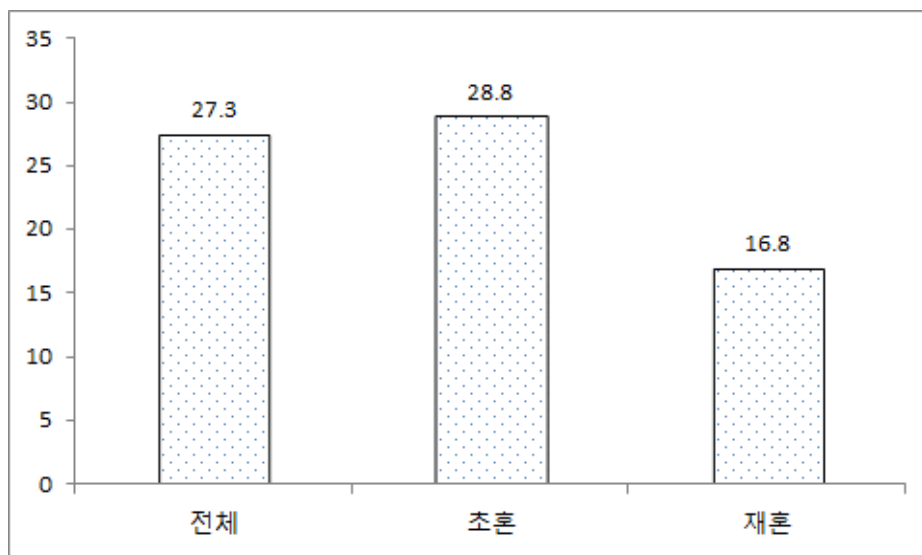
<표 2> 결혼이주여성들의 초혼과 재혼에 따른 출산 의향

(n=11,146명)

	구분	전체		초혼	재혼	χ^2
		N	%	%	%	
출산 의향	없음	8,101	72.7	71.2	83.2	87.410***
	있음	3,045	27.3	28.8	16.8	

* $p<.05$, ** $p<.01$, *** $p<.001$

국내 기혼여성의 경우를 보면 결혼이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가 높다. 전국 조사를 통해 국내 유배우 기혼여성(15~49세)의 출산 형태를 살펴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의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가 84%, 의향이 있는 경우가 12.5%이다. 국내 여성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그러나 결혼형태에 따른 추가 출산계획을 보면 결혼이주여성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국내 여성의 경우 초혼에 비해 재혼인 경우가 오히려 추가 예정 자녀 수가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15세~49세 기혼여성들의 초혼과 재혼의 결혼형태에 따라 1994년부터 2012년까지 3년마다 추가 예정 자녀 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09년 이전까지는 재혼과 달리 초혼에서 추가 예정 자녀 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2009년에는 추가 예정 자녀 수에 있어 초혼의 경우 1.37명, 재혼의 경우 1.44명으로 나타나 국내 재혼 여성의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난희·송혜숙 2015). 따라서 국내 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이 결혼형태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초혼과 재혼에 따른 출산 의향: 있음

3. 주요 독립변수 간 차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초혼과 재혼에 따라 각 독립변수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부간 대화를 살펴보면 재혼의 경우 초혼과 달리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인 경우가 33.5%로 높다. 결혼생활 만족도 차이를 보면 ‘약간 만족한다’의 경우 초혼 31.4%, 재혼 25.0%이다. 그러나 ‘매우 만족한다’의 경우 초혼 35.7%, 재혼 40.0%로 재혼이 높다. 마지막으로 모국인 모임, 한국인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 및 참여 경험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은 초혼과 재혼 모두 1번 경우가 42.2%, 44.8%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활동 및 모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국인 친구 모임에 참여한 경우가 6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교 활동 25.7%, 지역주민 모임 16.0%, 그리고 이주민 지원단체 등 민간단체 활동 모임 참여가 1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 여성들은 하루 평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한다(장혜경 외 2015).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비율이 31.0%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성의 경우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로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부부간 대화 만족도를 보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국내 남성과 결혼과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부부 간 대화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8%인 반면에, 국내 여성의 경우는 86.7%이다(정기선 외 2007).

결혼생활 만족도의 경우 국내 여성이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결혼생활 만족도가 다르다(그레이스정·임지영 2011). 사회적 활동 참여에 있어 국내 여성들의 경우 사회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높지만, 전반적인 사회단체 활동 참여는 낮은 편이다(신경희·이순희 2002).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내 여성과 달리 다양한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민무숙 외 2013).

〈표 3〉 결혼이주여성의 결혼형태에 따른 주요 독립변수 간 차이 (n=11,146)

	구분	전체		초혼	재혼	χ^2
		N	%	%	%	
부부간 대화	30 분 미만	1,925	17.3	17.5	15.7	22.699***
	30 분~1 시간	3,454	31.0	31.4	27.9	
	1 시간~2 시간	2,623	23.5	23.6	23.0	
	2 시간 이상	3,144	28.2	27.5	33.5	
결혼생활 만족도	만족하지 못 한다.	600	5.4	5.3	5.8	23.975***
	보통이다	3,099	27.8	27.6	29.3	
	약간 만족한다.	3,407	30.6	31.4	25.0	
	매우 만족한다.	4,040	36.3	35.7	40.0	
사회적 모임(활동) 참여 경험	없음	2,858	25.6	24.8	31.9	72.289***
	1 번	4,737	42.5	42.2	44.8	
	2 번	2,420	21.7	22.2	18.1	
	3 번	844	7.6	8.1	4.0	
	4 번 이상	287	2.6	2.8	1.2	

* $p<.05$, ** $p<.01$, *** $p<.001$

4.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간 대화, 결혼생활 만족도, 사회적 모임(활동) 참여 및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초혼과 재혼에 따른 차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4>). 모델1에서는 부부간 대화, 결혼생활 만족도 및 사회적 모임(활동) 참여 그리고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모델2, 모델3, 그리고 모델4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초혼과 재혼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부간 대화, 결혼생활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모임(활동) 참여 경험과 초혼과 재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해 분석하였다.

먼저 모델1을 보면, 부부간 대화가 많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국인 모임, 친구 모임, 지역주민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결혼형태에 있어 초혼에 비해 재혼의 경우 출산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를 보면 학력이 높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출산 의향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국적의 경우 중국 조선족은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산 의향은 더 낮다.

한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진 취업과 가구소득은 국내 여성들과 다른 차이를 보인다. 국내 여성들은 취업한 경우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이진숙·최원석 2012; Barber 2001). 그러나 취업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출산 의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국내 여성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출산 자녀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그러나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각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여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김은정 2013) 취업과 출산 관계는 다양한 결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부부간 대화, 결혼생활 만족도, 사회적 모임(활동) 참여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초혼과 재혼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요 독립변수 모두 초혼과 재혼 두 집단의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모델2, 모델3, 모델4에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초혼과 재혼의 결혼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모델2에서는 부부간 대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초혼과 재혼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호작용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출산 의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초혼보다 재혼에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모델3에서는 결혼생활 만족도와 출산 의향의 관계가 초·재혼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보면 결혼생활 만족도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의 관계는 초혼과 재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은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초혼보다 재혼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대한 결혼생활 만족도와 초·재혼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높은 수준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초혼보다 재혼한 결혼이주여성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혼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의 차이가 크지 않는 반면, 재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초혼에 비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과 달리 재혼의 경우 높은 이혼율 및 전혼 자녀 문제 등 복잡한 가족구조를 경험하지만, 자녀 출산을 통해 부부간의 만족도 및 안정성을 높여 간다(Holland & Thomson 2011; Sweeney 201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의 효과가 결혼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4는 다양한 사회적 모임(활동)에 참여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초혼과 재혼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모국인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모임 및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초혼보다 재혼인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혼과 달리 재혼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모임(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출산 의향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인 친구 모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간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출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감으로써 한국사회 적응도를 점차 높여나간다. 그러나 사회적 모임 및 활동 참여 수가 높을수록 출산 의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초혼과 달리 재혼에서 더 큰 결과를 보인다.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i>Coef.</i>	<i>Coef.</i>	<i>Coef.</i>	<i>Coef.</i>
결혼생활				
부부간 대화	0.128***	0.116***	0.128***	0.128***
결혼생활 만족도	0.171***	0.171***	0.144***	0.170***
한국사회에의 적응				
사회적 모임(활동) 참여 경험	0.116***	0.116***	0.115***	0.098***
부인 연령(vs. ~24 세)				
25~29	-0.141	-0.141	-0.139	-0.139
30~34	-0.305**	-0.306**	-0.301**	-0.303**
35~39	-0.709***	-0.708***	-0.706***	-0.708***
40~44	-1.569***	-1.572***	-1.565***	-1.570***
45~49	-2.773***	-2.776***	-2.792***	-2.760***
학력(vs. 초등학교)				
중학교	0.354**	0.359**	0.358**	0.357**
고등학교	0.464***	0.467***	0.468***	0.465***
2년제 대학	0.592***	0.597***	0.601***	0.591***
4년제 대학 이상	0.772***	0.778***	0.782***	0.772***
재혼 여부	-0.267*	-0.618*	-1.096**	-0.477**
취업 여부	0.305***	0.306***	0.307***	0.304***
한국어 능력	-0.050	-0.050	-0.050	-0.050
자녀 수	-1.722***	-1.723***	-1.723***	-1.724***
한국 입국 시기(vs. ~1995 년)				
1996~2000 년	-0.238	-0.234	-0.232	-0.233
2001~2005 년	-0.232	-0.229	-0.230	-0.232
2006~2010 년	0.091	0.093	0.094	0.092
2011~2015 년	0.648**	0.651***	0.656**	0.648**
국적(vs.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0.025	-0.027	-0.032	-0.025
일본	0.847***	0.844***	0.847***	0.852***
베트남	0.320***	0.318***	0.319***	0.312***
필리핀	0.368***	0.367***	0.367***	0.368***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i>Coef.</i>	<i>Coef.</i>	<i>Coef.</i>	<i>Coef.</i>
기타	0.381***	0.378***	0.377***	0.373***
남편 연령(vs. ~24 세)				
25~29 세	-0.541	-0.509	-0.552	-0.523
30~34 세	-0.212	-0.179	-0.208	-0.195
35~39 세	-0.314	-0.284	-0.312	-0.294
40~44 세	-0.696	-0.666	-0.695	-0.673
45~49 세	-1.105	-1.074	-1.101	-1.082
50~54 세	-1.536*	-1.503*	-1.531*	-1.518*
55 세 이상	-2.120***	-2.089**	-2.106**	-2.094**
남편 재혼 여부	-0.204*	-0.205*	-0.205*	-0.204*
남편 학력(vs. 초등학교)				
중학교	-0.259	-0.262	-0.255	-0.257
고등학교	-0.252	-0.254	-0.249	-0.249
2 년제 대학	-0.152	-0.153	-0.152	-0.151
4 년제 대학 이상	-0.180	-0.182	-0.177	-0.178
가구소득	-0.011	-0.011	-0.011	-0.011
거주 지역	-0.130*	-0.130*	-0.129*	-0.130*
부부간 대화x재혼 여부		0.121		
결혼생활 만족도x재혼 여부			0.262*	
사회적 모임(활동) 참여 경험x재혼 여부				0.195*
_cons	0.784	0.784	0.849	0.784
Log likelihood	-4307.163	-4306.215	-4303.904	-4305.280
N	11,146	11,146	11,146	11,146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최근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관심이 높다. 이는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여성이고 이들의 출산 행태가 국내 여성과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이 국내 여성들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들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초혼과 재혼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출산 논의와 달리 출산 의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출산 의향은 실제 출산행위와 관계가 있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해 명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책의 주요 관심이 될 수 있다(유정균 2014; Richter et al. 1994; Schoen et al. 1999).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형태에 따른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초혼에 비해 재혼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의 경우 이전의 자녀로 인해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부 간 대화,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관련 요인들이 자녀 출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우자로부터 높은 정서적 지지를 통해 결혼생활 안정성을 높인다(김은경 2014).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긍정적 관계는 서로에 대한 높은 애착과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Lawler & Yoon 1993). 국내 여성과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초기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대화가 많을수록 남편에 대해 많은 신뢰를 가지고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적응도를 높여 간다. 따라서 배우자와 잦은 대화는 자녀 출산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Mason & Smith 2000). 그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도 높아진다. 많은 선행연구는 여성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생활 만족도를 꼽고 있다(김은경 2013; 배광일 2015; 이윤석 외 2016; 송민경 2014; Carmichael & Wittaker 2007). 이는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

도 및 가사분담 참여도를 높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성역할 평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자녀 출산 결정에 배우자와의 관계 특성인 결혼생활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유진 2017; 김은경 2013; Parr 2010; Yoon 2016).

셋째, 모국인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할 때, 모국인 모임, 친구 모임, 기타 지역사회 단체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갈수록 점차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경미 2013; 문미숙 외 201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확장을 통해 자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섭 2008; Kohler et al. 2001).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초혼과 재혼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본 변수들의 효과는 재혼인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과 재혼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를 보면, 초혼보다 재혼인 경우 이혼율이 높고 전혼 자녀 관계 등 새로운 가족관계 및 결혼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인실 외 2012; McCarthy 2007).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재혼 가족의 경우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송민경 2014).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혼과 달리 재혼의 경우 높은 이혼율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재혼 가족은 새로운 자녀 출산을 통해 부부간 관계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Holland & Thomson 2011; Steward 2002). 실제로 초혼과 달리 재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민경 2014; Mirecki et al. 2013). 많은 부부가 부부관계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때(Friedman et al. 1996), 재혼 가족에서 자녀 출산은 부부관계 안정화를 더욱 높여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등 결혼생활 관련 요인들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뿐만 아니라 다문화 재혼 가족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모국인 모임, 지역사회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모임 및 활동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을 높이며, 이러한 영향이 재혼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성과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한국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김경미 2012; 문미숙 외 201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그들이 가진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민아 2012). 한국생활에서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사회 활동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넓혀 감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감소시켜 안정성을 높여준다(Burt 1997).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안정성을 높이고 한국사회 적응도를 더 높여 가기 위해 더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한국사회 적응도를 높여 가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모임 및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김두섭 2008).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넓혀 한국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횡단적(cross-sectional) 자료이다.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 결혼 후 어떠한 시점을 통해 출산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없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기간 및 한국 입국 시기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결혼생활 안정성 및 한국사회 정착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 다문화가족 관련 종단적(longitudinal)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패널 자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이주 후 추적조사를 통해 출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초혼과 재혼에 따른 차이에 따라 출산 의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형태가 본국에서 이혼 후 국내에서 재혼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결혼과 이혼을 모두 경험하고 다시 재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출산 의향은 자녀 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재혼 여성의 경우 전혼 자녀 유무는 새로운 배우자 관계에서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재 자녀 수만 파악할 수 있어 재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가 이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얻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자녀가 중도입국 자녀인지 분석할 수 없었

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자녀 등 자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의향을 통해 실제 출산행위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출산 의도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실제 몇 명의 자녀를 출산했는지 등 출산 의향에 대한 명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행위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함께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주 전후에 따라 연결망 크기 및 접촉 빈도 등 변화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모임 및 활동의 수를 통해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 그레이스정·임지영. 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만족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5): 33-48.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두섭. 2008.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1(3): 1-26.
- 김두섭. 2012.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와 결혼안정성: 국제결혼개방성 가설의 검증.” 《한국인구학》 35(1): 1-30.
- 김두섭·송유진. 2013. “거주지역 외국인 아내의 비중과 가구구조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주변효과의 검증.” 《한국인구학》 36(1): 51-74.
- 김미정·염동문. 2015.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31(3): 1-25.
- 김승주. 2016. “생애사 연구를 통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삶의 재구성.” 《가족과

- 문화》 28(4): 91-130.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은경. 2014. “부부관계특성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99-217.
- 김은정. 2013.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91: 2013-21.
- 김은하·박형숙·배경희. 2012.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정에서 체험한 갈등경험.” 《질적 연구》 13(1): 66-78.
- 김한곤.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출산국가별 출산인식 및 출산형태의 차이.” 《민족문화논총》 49: 567-595.
- 김현식. 2015. “혼인이주자가족과 한국인가족의 출산력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35(1): 427-454.
- 김현식·정미옥·백지선. 2017. “자녀 출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조사연구》 18(3): 23-46.
- 노연희·이상균·박현선·이채원.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대한 연구-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4(2): 159-183.
- 남부현·오정아. 2013.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131-154.
- 민무숙·김이선·주유선·이정연.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85(2): 5-43.
- 배광일. 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광일. 2015. “모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환경이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4): 59-84.
- 변용찬·김동희·이송희. 2010. 《결혼형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민경. 2014. “중도입국청소년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재혼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5(9): 35-64.
- 신경희·이순희. 2002. 《서울시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원.

- 우해봉. 2012. “한국인의 재혼 패턴에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4): 273-303.
- 유삼현. 2017. “이주여성의 출산력 수준: 엮힌 실타래 풀기.” 《한국인구학》 40(1): 29-55.
- 유정균. 2014. “혼인이주여성의 아들선호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7(3): 79-105.
- 유정균. 2015.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 수준 비교: 합계출산율과 출산간격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8(3): 49-73.
- 유정균. 2017.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아 수별 출산계획: 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중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106-139.
- 이난희·송혜숙. 2015. “가임기 여성의 재혼과 출산 문화.” 《문화산업연구》 15(4): 175-179.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이삼식·박종서·김필숙·김형석.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해·최효진·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석·김필숙·심규선. 2016.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경. 2009.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여성학논집》 29(1): 183-206.
- 이진숙·최원석. 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론에 관한 연구-성역할태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5-30.
- 이종호·노현희(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문화적응간의 관계.” 《다문화콘텐츠연구》 24: 235-273.
- 임춘희. 2014. “한부모 이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3(6): 1049-1069.
- 임현숙. 2011.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3): 243-255.

- 임현주·이대균·최항준. 2011. “부부특성, 출산관련 정서, 어머니의 정서특성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 탐색: 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5): 183-202.
- 장일실·서덕희·이지현. 2012. “재혼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8(2): 143-175.
- 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영란·주재선·김소영·오현경·김수지. 2015. 《2015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정기선·김혜영·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복례·유광자·김지숙. 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 《가족과 문화》 26(2): 221-244.
- 정은희·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정혜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조미영·주영은. 2013. “다문화 가정 부모의 결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의 실제.” 《한국보육학회지》 13(3): 19-43.
- 조윤주. 2015.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자녀 출산 의향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4(5): 631-643.
- 차승은·김두섭. 2008. “혼인이주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한국인구학》 31(3): 131-157.
- 천혜정. 2005. “둘째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 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 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3.
- 최정혜·이명주. 2016. “다문화가정 일본인아내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 경험 연구.” 《비교일본학》 37: 65-85.
- 통계청. 2011.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보도자료》. 2011.11.3. 통계청.
-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 통계청. 2017. 《2016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17.3.22. 통계청.
- 통계청. 2017. 《2016년 출생 통계(확정) 보도자료》. 2017.8.30. 통계청.
- 통계청. 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보도자료》. 2017.11.16. 통계청.

- 한은주·박정윤. 2006.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2.
- Abbasi-Shavazi, J., and P. McDonald. 1997. “Fertility and Multiculturalism: Immigrant Fertility in Austral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1): 215-242.
- Andersson, G. 2004. “Childbearing after Migration: Fertility Patterns of Foreign-Born Women in Swede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2): 747-774.
- Barber, J.S. 2001. “Ideational Influences o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ttitudes Toward Childbearing and Competing Alternativ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2): 101-127.
- Burt, R.S.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39-365.
- Carmichael, G.A. and A. Whittaker. 2007. “Choice and Circumstance: Qualitative Insight into Contemporary Childlessness in Australi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2): 111-143.
- Cherl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3): 634-650.
- De Graaf, P.M. and M. Kalmijn. 2003. “Alternative Routes in the Remarriage Market: Competing-Risk Analyses of Union Formation after Divorce.” *Social Forces* 81(4): 1459-1498.
- Friedman, D., M. Hechter, and S. Kanazawa. 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31(3): 375-401.
- Hartman, M., K. Gilles., D. Shattuck., B. Kerner, and G. Guest. 2012. “Changes in Couples' Communication as a Result of a Male-Involvement Family Planning Interven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7(7): 802-819.
- Holland, J.A. and E. Thomson. 2011. “Stepfamily Childbearing in Sweden: Quantum and Tempo Effects, 1950 - 99.” *Population Studies* 65(1): 115- 128.
- Kim, B.H., J.K. Lee, and H.J. Park. 2016. “Marriage, Independence and Adulthood among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 of Social Science* 44: 338-362.
- Kim, G.J., M.S. Yang, and H.J. Kim. 2016. "Factors Influencing Family Relation Stress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8(1): 329-338.
- Kohler, H.P., J.R. Behrman, and S.C. Watkins. 2001. "The Density of Social Networks and Fertility Decisions: Evidence from South Nyanza District, Kenya." *Demography* 38(1): 43-58.
- Lawler, E.J. and J.K. Yoo. 1993. "Power and the Emergence of Commitment Behavior in Negotiated Ex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4): 465-481.
- Luo, H. and Z. Mao. 2014. "From Fertility Intention to Fertility Behaviour." *Asian Population Studies* 10(2): 195-207.
- Mason, K.O. and H.L. Smith. 2000. "Husbands' versus Wives' Fertility Goals and Use of Contraception: The Influence of Gender Context in Five Asian Countries." *Demography* 37(3): 299-311.
- McCarthy, B.W. and R.L. Ginsberg. 2007. "Second Marriages: Challenges and Risk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5(2): 119-123.
- McQuillan, J., A.L. Greil., K.M. Shreffler, and A.V. Bedrous. 2015. "The Importance of Motherhood and Fertility Intentions among U.S.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58(1): 20-35.
- Mirecki, R.M., J. Chou., M. Elliott, and C.M. Schneider. 2013. "What Factors Influence Marital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First and Second Marriag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4(1): 78-93.
- Myers, S.M. 1997. "Marital Uncertainty and Childbearing." *Social Forces* 75 (4): 1271-1289.
- Parr, N. 2010. "Satisfaction with Life as an Antecedent of Fertility: Partner +Happiness=Children?" *Demography Research* 22: 635-662.
- Richer, K., C. Podhisita., A. Chamrathirong, and K. Soonthorndhada. 1994. "The Impact of Child Care on Fertility in Urban Thailand." *Demography* 31(4): 651-66.

- Seeman, T.E., T.M. Lusignolo, and L. Berkman. 2011. "Social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Patterns of Cognitive Aging in Healthy, High-functioning Older Adults: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Health Psychol* 20(4): 243-255.
- Sweeney, M.M. 2010. "Remarriage and Stepfamilies: Strategic Sites for Family Scholarship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67-684.
- Schoen, R., N.M. Astone., Y.J. Kim., C.A. Nathanson, and J.M. Fields.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790-799.
- Stewart, S.D. 2002. "The Effect of Stepchildren on Childbearing Intentions and Births." *Demography* 39(1): 181-197.
- Thoits, P.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Wineberg, H. 1990. "Childbearing after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1): 31-38.
- Woolcock, M. and D. Narayan.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 Yoon, S.Y. 2016. "The Influence of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Families on Women's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South Korea." *Demography Research* 36: 227-254.

<접수 2017/10/12, 수정 2018/01/15, 게재확정 2018/02/19>